蓬萊曲

單

彝南題簽

봉내곡

포의ᄂᆞᆫ 션비의 옷시라

희동의 얼포의가 공ᄆᆡᆼ의 도ᄅᆞᆯ ᄇᆡ화 외ᄇᆞᆫ쇼 출ᄒᆞ니

공ᄆᆡᆼ은 공ᄌᆞ와 ᄆᆡᆼᄌᆞ니 녯 셩인이라

지셜은 후지라 셜이니 ᄌᆡ요셔 ᄎᆡᆨ ᄒᆞᆫ 신하라

어리ᄂᆞᆫ 노어리 메 지셜의 ᄯᅳᆺ을 ᄇᆞᆯ근 ᄃᆞᆼ셩은 ᄒᆞᆼ강ᄒᆞ야

반셰ᄂᆞᆫ 반 셰샹이오 고욕ᄂᆞᆫ 사ᄅᆞᆷ 사괴고 논다 ᄯᅳᆺ이라

반셰ᄅᆞᆯ 고욕ᄒᆞ기 형산의 믓친 옥과 갓 업ᄂᆞᆫ 보ᄇᆡᆫ 구ᄉᆞᆯ

챵희ᄂᆞᆫ 바다히라

쳬인은 셰샹 사ᄅᆞᆷ이라

알니ᄉᆞ 젼혀 어ᄇᆞ라 챵희의 ᄃᆞᆯ는 구ᄉᆞᆯ 쳬인이 다 보ᄅᆞ니

무능은 광쥐모하라

ᄇᆡᆨ슈ᄅᆞᆯ 무용ᄒᆞ야 무능에 도라 오니 녹긔금 ᄇᆡᆨ에 닐ᄂᆞᆫ

녹긔금은 거문고 일홈이오

황졍경은 글시 일홈이라

ᄇᆡᆼ난을 ᄒᆡᆨᄒᆞ과 초당 삼간 소쇄ᄒᆞ다 황졍경 샹의 ᄭᅥᆺ에

숑국을 울울총샹ᄒᆞᆫ (숑국은 솔과 국화오) 청풍명월북창하에 싀문을 구디ᄌᆞᆫ (싀문은 나무 ᄀᆞ문이라)

뫼 두국이 벗이 되야 (비듀국은 비화와 더라) 한가ᄒᆞᆫ 쥬인 어라 톅죽로 쇼견ᄒᆞ니

낙화를 ᄡᅳ러 말라 단표의 누엇ᄉᆞ니 (단표ᄂᆞᆫ 밥 그릇과 국 그릇시라) 쇽셕의 미친 몸은 (쇽셕은 평셩이라)

날ᄎᆞ드리 누엇시되 셩계를 모롤울소냐 산숙에 벽에 잇셔

촌로가 일깔히여셔 단산의 ᄇᆡᆨ을 키미 (단산은 단양이라) 상금의 놉흔 자최 (생금은 빗생조평금조하라)

남국을 유람ᄒᆞ니 (납국은 유산ᄒᆞᆫ 나무 신이라) 쇽셕에 졀승ᄒᆞ다 나도 ᄎᆞᄎᆞᆫ 탈을 펴니

쥐담의 빈를 져터 (쥐담은 물일홈이오) 옥츈의 시를 울어 (옥츈은 옥츈봉이니 뫼일홈이라) 강울 벽ᄒᆞᆫ 청근봉의

와서 국노래 ᄒᆞ고 (안녀곡은 빈노래라) 욕션ᄉᆞᄅᆞᆫ 회 나던ᄒᆞ니 난학이 ᄂᆞ니ᄂᆞᆫ 듯 (난학은 난봉과 학이라)

두향은 단양 옛 영춘 녯 기생이니 무덤이 강션대의 잇더라

강션대 두향 혼을 삼션암 기ᄇᆞᆫ 곳에 강산풍죽 구울 녕에

삼션암은 상션 중션 하션암 세바회 이름이라

얼븨 ᄭᅮᆯ을 뫼올 ᄒᆞᆫ 걸강어 효오 ᄒᆞ니 셔리 빗ᄎᆡ 어름 납ᄂᆞ

오녕에 번울 ᄒᆞᆷ몽울

오냉에 썬울 훗을

산중에 두라 오며 쇠모풍셜 젹ᄃᆞᄒᆞᆫ디

녹칠븐 뫼 슌흑에 몽흔이 졍ᄃᆞᄒᆞ니 뭇ᄃᆞᆫ ᄂᆞᆷ은 흥어

녹칠븐 뵈치

분리는 분의 영화라

분리를 상여ᄒᆞ리 삼쳥의 ᄂᆞ희은으로 츈풍의 병산 그롤

삼쳥은 삼쳥동이니 지좀 예참판 공이라

쳑셔는 편지라

믹ᄂᆞ히 말이 업ᄂᆡ 흥어 날 갓희야 쳑셔를 어엑 ᄒᆞ리

동희 생산 션산의 동텬에 목욕ᄒᆞᆫ디 ᄃᆞ울은 풍악이오

봉녀는 금강산이라

셕구산은 돌산이라

풍악 개골은 다 금강산이니 ᄀᆞ올은 단

풍이 ᄯᆞ라 ᄯᆞᆯ이오 져울은 돌이 희다

봉니 가죄어올 비라 셕산에 눈 갓트니 져울은 져 골이라

부쳐의졀셜얻은 일만이쳔거슨봉이 ᄲᅧ무더둥국이여
신션는왕사ᄒᆞ엿듸 화엄경에(화엄경은불경이라) 시ᄅᆞᆷ어셔 ᄒᆞᆫ번보믈원ᄒᆞᆫ다ᄒᆞ더라
쳔하명산여돏듸에 금강의불노초가 드ᄅᆞ며생쟝ᄒᆞ야
긔어ᄒᆞ니 웃듬 이라 먹으면향시나니 엇극가웃슬어즈다
희약의(희약은바라와뫼라) 넘ᄂᆞ다 챵두를(챵두ᄂᆞᆫ종이라) 졍제ᄒᆞ야 개ᄭᅡᆫᄒᆞᆫ프른나귀
젼ᄂᆞᆫ번ᄇᆞ을주ᄒᆞᆫ뒤ᄂᆞᆫ(년관은젼약을관련ᄒᆞᆫ말이라) 힝랑을낫츠리니 검낭을(검낭은줄지어넣ᄂᆞᆫ쥬머니라) 얄ᄭᅬ걸ᄂᆞᆫ
오동벼로속향먹을 농암션셩동유긔를(동유긔ᄂᆞᆫ금강산본일긔라) 효연이문의ᄒᆞ니
되황모낭두ᄃᆞᆯ라 찍히어ᄃᆞᆺ어다 힝셕이초최ᄒᆞ예

졍언니건너가니 운소의 람을비러 마져압너른강을

운소는계시별호라

금봉산어돌울ᄒᆞ다 ᄒᆞᆯ밤더션후의 쳥션의건너가니

쳥신은시벽이라

두미소별ᄒᆞᆫ길희 ᄆᆞᆯ낭어거나셜 가러차울춍ᄒᆞ야

가리는아람다온긔운이오 ᄋᆞ른춍은ᄯᅳᆺ[illegible]동이라

풍범어낙뎍ᄒᆞ니 삼각산보라보며 한양울ᄒᆞ외ᄒᆞ니

풍범은바람돗뎌라

거쳐울웅쟝ᄒᆞ올샤 혁소졍ᄂᆞ가거니 누양뎌너른들에

금탕은금셩탕지니험ᄒᆞ다말이라

쌀쳐쥐금탕어다 풍양울가ᄂᆞᆫ리니 뒨납ᄃᆞᄒᆞ올샤

숙목어무밀ᄒᆞ니 업ᄃᆞ저건너셔ᄂᆞᆫ 보리평돌미ᄯᅥᆨ은

냥ᄒᆞ어뎌거로ᄒᆞ다 포텬읍너가니 힝인울보시ᄂᆞᆫ듯

당버러 다려 먼저 호가 랑마 ᄒᆞ야 룩셕녕졍욱 놀나

동형을 기드리니 느서가 참을 써니 명일 그우마 ᄒᆞ셔

풍운 목숨 일흔 (긱숙ᄂᆞᆫ 손의 근심이라) 블밋희 꼿그리ᄆᆞᆺ즈 (빅노치ᄂᆞᆫ 영평 명승처라) 만세교복 여길여

긱숙가 그지 업다 빅그쳐 과 아닌가 냥끌미울 ᄉᆡᆼ하시니

(창옥병은 옷 명ᄒᆞᆫ 곳이오) 창옥병 렴(?)ᄂᆞ 땅ᄒᆞᆫ (산양젹은 녯사ᄅᆞᆷ이 산앵ᄭᅡ희셔 져 부ᄂᆞᆫ 소리를 듯고 죽은 벗을 ᄉᆡᆼ각ᄒᆞᆫ 고ᄉᆞ러) 산앵젹술 모은 소리 돌돌에 말을 쉬여

(금슉뎡은 옷명ᄒᆞᆫ 뎡ᄌᆞ니 영평ᄯᅡ히라) 금슉뎡지 뎌므ᄒᆞ리 (ᄒᆞᆫ지라 년전의 온 천ᄂᆞ 진ᄉᆞ와 창옥병 금슉뎡의 노랏더니 거년이 녯날이 뎐지라) 왕ᄉᆞ가 눈물 나ᄂᆞ다 셔지울 와ᄉᆞ그리다 (창감ᄒᆞ더라 왕ᄉᆞᄂᆞᆫ 디나간 일이라)

련나 청혜여 니야 (금화ᄂᆞᆫ 달빗치오) 금파가 랑앵ᄒᆞ니 (화강은 김화 별호라) 화강에 술을 사니

신외울을 엿보거라 (향아ᄂᆞᆫ 날속의 앗ᄂᆞᆫ 제집이라) 향아가 쉬거ᄒᆞ니 (십실은 여ᄅᆞᆫ 집이라) 십실지 젼움이라

피금졍 볼수 잇니 쳥강은 의대ᄒᆞᆫᄃᆞ 퇴어공 쇠친 굴을
(의쳥은 김쳥변 호라) (물근 강은 옷과 쇠두름 ᄀᆞᆺ고) (퇴어공은 죵고조 잼찬 공별 호라)

억쳥에 여지로다 원산은 아미로셔 공경ᄒᆞ야 동운ᄒᆞᆫ
(먼산은 눈섭 ᄀᆞᆺ다 말이라)

읍쳠을 두려오니 창도역 동화ᄒᆞ니 녕동을 거모ᄂᆞᆫ 어곽
(읍쳠은 읍너 ᄎᆞᆫ 막이오) (녕동은 티 관녕 동편이라 어곽은 셩쳔 라에 욱 이라)

쳥셕을 너엇더라 젹ᄉᆞᆯ을 버혓ᄂᆞᆫ듸 여지와 도회 ᄒᆞ네
(쳥셕은 포른 돌이라)

보리빗찰 막ᄃᆡ 집허 험ᄒᆞᆫ 길 신안역에 길가의 용학령은
(보리빗찰은 면덕일 홈이라)

연흥포 빈건 너니 황혼에 거의로다 일홈은 드로건만ᄂᆞᆫ

쳔학은 어ᄃᆡ 가고 짯숙 풀 프른 곳이 목과령 ᄂᆞ린 물의

창송만 남앗ᄂᆞᆫ고 뭇너아 셔회행일다 편쥭ᄅᆞᆯ 뎌허가셔
(편쥭은 져ᄂᆞᆫ 비라)

(ᄎᆞᆯ령은 고개일흠이라)
철령을 올나가니 ᄭᅮᆷ과 갓치 쉬우니 관산이 아득ᄒᆞ니
(관산은 변방이라)
급흠도 첩ᄒᆞᆯ 산 별을 거의 ᄃᆞᄒᆞ니 이 몸에 ᄭᅮᆷ이로다
(희셕은 바다빗치오 악세ᄂᆞᆫ 띄향세라)
희셕은 거ᄀᆞᆯ 비은 빅두산 ᄂᆞ린 물에 일번 축마신 후의
(경ᄉᆞᄂᆞᆫ 셔울이라)
악세ᄂᆞᆫ 성 얼거다 경ᄉᆞ로 축축ᄒᆞ다 남여로 ᄂᆞ려가니
것ᄌᆞᆯ로 날 ᄂᆞᆫ 몸에 一 듸에 오ᄂᆞᆫ 북부들은 고산 첩쳐욱 가니
(북부ᄂᆞᆫ 하인이라)
하마ᄒᆞ면 쳐 허질번 ᄒᆞ다 목 ᄎᆞᆺ히고져 잇ᄂᆡ 월셕에 만평이다
셜봉이 어듸 민오 츈마 잔 모든 계 집 셕왕 ᄉᆞ연 등셕에
(축륙은 절과 져올 난다 말이라)
농죽 원ᄂᆞ려 가니 가ᄂᆞᆫ 뫼셔 못 넘고 츅륙 불ᄂᆞᆫ 오그리라

압길울 ᄌ쇄 무어 동언문 관속문에 ᄑ른솔 난풍 남북
(주) 문 이르 ᄒᆞᆷ이라
동구로 드러가니 길을 막아 쇄히 왓든ᄃᆡ 희빗출 못볼너라
(주) 부도ᄂᆞᆫ 즁의 사리 감촌 거시니 돌업ᄒᆞᆫ 모양 갓더라
여닐곱 돌부도가 무지개 돌ᄃᆞ리에 천여간 명산대찰
길가에 버러 잇고 우의ᄂᆞᆫ 취각이라 뉘라셔 지으신고
(주) 취각은 관청ᄒᆞᆫ 집이라
건국ᄒᆞ온 우리 ᄐᆡ조 무학대ᄉᆞ 물어셔니 오빅나한 벽에 셜ᄒᆞ여
(주) 무학은 국초적 명승이라
(주) 나한은 부쳐라
흥룡의 길흉 ᄎᆞ자 절을 지어 잡ᄒᆞ고 길 ᄎᆡ셔 옴져오니
풍비ᄂᆞ 영월ᄂᆞ며 난평도 휘황ᄒᆞ고 서원 압 깁흔 곳에
(주) 누ᄋᆞᆯ 홈이오
(주) 본 일홈이라
법고종 문ᄃᆞᆼ 보천 뇌ᄃᆞᆫ 광경 ᄌᆞ셔ᄒᆞᆯ샤 뇌묵이 홍평ᄒᆞ니
(주) 뇌묵은 즁의 별호요 송정은 ᄇᆞᆯ근 경에
(주) 오다 말이자

가샤착복합당ᄒᆞ고 청숙ᄒᆞᆫ등의출격 셜산구완월ᄒᆞᆫ후에 (완월은달구경이오)

여리ᄅᆞᆯ뫼셧ᄃᆞᆫ듯 (여리ᄂᆞᆫ셔가여리라) 뎐화거편혀업에 학셩을ᄂᆞ아가니 (학셩은안변별명이라)

남녀편걸ᄅᆞᆫ도ᄅᆡ 명부ᄂᆞᆫ셔친ᄃᆞ라 (명부ᄂᆞᆫ원이오) 진책이만반ᄒᆞ니 (진책은보리의음식이오)

버ᄅᆞᆯ빗기셜ᄅᆞᆫ외다 관쥭ᄅᆞᆫ대텹ᄒᆞ니 (관쥭ᄂᆞᆫ관쳥이라) 슉륙이가ᄌᆞᆺ더라 (슉륙은물과뭇고기라)

신힝을ᄒᆞ어ᄒᆞ고 (신힝은힝ᄎᆞ를돕ᄂᆞᆫ말이라) 상암의슉소ᄒᆞ고 바다옥굽은길에

청총마빌니걸울 죽셤목울ᄎᆞ자가니 물소리우혜ᄀᆞᆺ다

신션의영ᄃᆡ두즈 엄뭉진슉지ᄇᆞᆫ호가 (여별은각셕셩쳔과쟈라라) 날마다가ᄌᆞ미랑

ᄂᆡ라셔셕여ᄂᆞᆫ고 여별이셩일너라 비워사거ᄉᆞ린가

일엽어주 잡아타고 조고만흔 둥셤에 네모진 돌기동을
(일엽어주는 고기잡는 져근 비라)
주도시 붓드러 가니 물에 반은 잠겻ᄂᆞ다 ᄎᆞ례를 엇거니와
병풍 친 듯 둥근 봉ᄒᆡᆼ 엄흔 놋고린 줍하 그 둥은 토산이라
(토산은 흙산이라)
ᄉᆞ면을 둘너셔ᄂᆡ 반돌 봉ᄒᆞᆸ ᄉᆞ촐 대 숙풀이 ᄐᆡᆼ돌ᄒᆞ고
후면의 젼은 숨엉 흉경을 울니ᄂᆞᆫ 듯 져션의 드시던가
(종경은 쇠북이라 경쇠 소리라)
풍숙가 생당ᄒᆞ니 풍뉵소리 ᄌᆞ쟛더라 됴믈의 거롱인ᄌᆞ
(풍숙는 바람과 물이 서로 탕ᄒᆞ다 말이라)
(됴믈은 도화몽이라)
ᄉᆞ면으로 돌며 보니 어션을 ᄎᆞᆺ 만나 강요ᄌᆞ희 내우ᄒᆞ니
(어션은 고기잡는 비라)
셩리ᄒᆞ고 신긔ᄒᆞ다 각석근 기ᄌᆞ 졍ᄒᆞ고 그 맛시 시ᄉᆞᆨ ᄒᆞ다

학포로 도라ᄒᆞ셔 파도ᄂᆞᆫ 동ᄒᆞ고 시동대 보셰 ᄒᆞ오 (파도ᄂᆞᆫ 물결이오)

동울 견행ᄒᆞ니 신누ᄂᆞᆫ 츌ᄒᆞ셰 가ᄂᆞᆫ 쳣 지긔 머므ᄅᆞ니 (신누ᄂᆞᆫ 날더운셰 바다우희 조개긔운으로 누ᄃᆡ 형상쳐로 즁〃 얼골뵈ᄂᆞᆫ 거시라)

굽ᄋᆞᆫ 술 ᄇᆞᆯ근 그ᄂᆞᆯ 무릅 아래 일곡평호 적ᄂᆞ ᄃᆞᆫ 날 그ᄂᆞᆯ 굽 셕무에 (일곡평호ᄂᆞᆫ ᄒᆞᆫ구븨 물이라)

챵벽을 어ᄇᆡ헛ᄂᆞᆫ ᄃᆡ 국의 갓치 찰ᄂᆡᄒᆞ고 셕양의 버쳣ᄂᆞᆫ ᄃᆡ (셕양은 저녁볏치라)

삽〃ᄒᆞᆫ 화듕경에 세 일홈 칠볼 ᄃᆡ롤 쳡ᄇᆞ국 음ᄇᆡ 잠간리나 (화듕경은 그림속경ᄀᆞᆺ다 말이라)

희ᄂᆞᆺ빗 되어 옥ᄀᆞᆺ다 ᄒᆞᆫ 숀찰에ᄂᆞᆫ 펏ᄂᆞ와 고졔로 ᄀᆞ라 가니 (숀찰은 감ᄉᆞ라)

쳔셔ᄒᆞᆫ 개하 ᄡᅡᆼ울 쳑〃 셕직에 죠ᄒᆞᆫ 곤에 누ᄇᆡ〃ᄒᆞᆫ 동히 슈로ᄅᆞᆯ

엇거 져의 즐비ᄒᆞ니 압ᄒᆞᆯ 버려 일고 뒤ᄒᆞᆯ 지고 안져

어염은셩션과소금이오

어염을로ᄂᆞ려ᄒᆞ니 곤ᄒᆞᆫ잠 일솟치야 돌기동 여ᄉᆞᆺ보ᄅᆞᆯ

ᄉᆡᆼ고ᄂᆞᆫ각셕쟝ᄉᆞ로복츅ᄂᆞᆫ말히오히나말이라

ᄉᆡᆼ고가 복츅ᄒᆞᆫ다 춍셕평ᄌᆞ졍갓나 뉘라셔 ᄒᆞᆨ갓ᄂᆞᆫ고

젼후좌우셔고누은 ᄒᆞᆫ목향녹모셕어 풍도와 날ᄂᆞ뵈셔

풍도ᄂᆞᆫ바람과물결이라

쳔울은혜너픗홀 ᄉᆞ연울돌낫시되 졍녕이 ᄎᆞᆯ앗더라

그둥의ᄉᆞ쳔봉어 축십셕축각봉거 한무졔승그반어

셕주ᄂᆞᆫ돌기동이라

승그반은이슬밧ᄂᆞᆫ소반이라

뉘안니졀승과되 물속에버렷시니 늡기가져러ᄒᆞ여

졍녕위ᄂᆞᆫ신션의일홈이오화표쥬ᄂᆞᆫ기동일홈이라

졍녕위화표쥰돌 ᄶᅵᆺ젹의계신션어 경쟝어진퇴ᄒᆞᆫ후

경쟝은신션의술이라

이갓더러홀소냐 예와셔근이일쳬의옥통소불어기불여

바라ᄅᆞᆯ 구버보고 쳥학은 로곰을 ᄎᆞᆽ고 십쥬로 ᄂᆞ라 간후 (십쥬는 신션 노던 곳이라)
명월을 희롱ᄒᆞ니 노룡은 ᄯᅥᆨ그어니 (노룡은 늙은 룡이라) 소식이 쳔년 버라
희련이 묘망ᄒᆞ니 (묘망은 아득ᄒᆞᆫ 형용이라) 한쳔 쳥즈럼 는간 만니의 파랑ᄒᆞ니
물을 더 쳔혀 업셔 의지ᄒᆞ야 ᄇᆞ라보고 흉즁이 쾌할ᄒᆞ다
남편 쟉곰 난줄도 (곰난굴은 굴 일홈이라) 물속의 기별ᄒᆞᆫ 줄ᄒᆞ여 셩심을로 묵도ᄒᆞ면 (묵도는 졍셩으로 가마니 빈ᄃᆞ 말이라)
동ᄃᆞ 미영이 ᄒᆞ올ᄒᆞ샤 눌은 돌 둘너 산ᄃᆡ 프른 셔 ᄂᆞ라 오며
낙가산 관음ᄉᆡᆼ이 둥ᄉᆡᆼ을 (듕ᄉᆡᆼ은 셰ᄉᆡᆼ 사람이라) 졔도ᄒᆞᆯ ᄯᆡ 풍낭의 (풍낭은 바람 물결이라) 길에 ᄲᅡ져
분명이 현연ᄒᆞ야 ᄇᆡᆨ신이 츅ᄌᆞᄒᆞ셔 현분이 업드런가

동쳔을발거ᄂᆞ 운암여져믄날에 부단혼그는손이
뵐아고져더며셧 벼개를굽히뻬나 벽졍봉말을ᄒᆞ되
돌마나가마모양 봉마나리ᄒᆞᆫ형상 줄속에즘부희와
빅숙가ᄂᆞᆷ아벌고 만울나못ᄒᆞᆯ어 절벽의봉내필법
(봉내ᄂᆞᆫ옛사ᄅᆞᆷ양봉내니명필이라)
ᄂᆞ국뫼흥의져외 굴안리ᄌᆞ옥ᄒᆞ야 단식고도라셔ᄂᆞᆫ
셔벽의보려어ᄂᆞ 지획을불분ᄒᆞᄂᆞ 독별ᄒᆞᆫ올ᄂᆞ가ᄂᆞ
뫼허리초분길에 말히부라뵈니 셜등의뫼그림ᄌᆞ
(숙쳔은ᄎᆞᆯ라하ᄂᆞᆯ이라) (대붕은봉이란새라)
대희를님ᄒᆞ엿ᄂᆞ 숙쳔이일쇽이라 대붕의발ᄋᆞᆷ날리

혼뎍이 몯ᄒᆞᄂᆞ니 진시황 동남동녀 ᄃᆡ을션 언연엽셥은

(ᄃᆡ을션은 신션이니 ... 바다의 잇ᄂᆞ니)

뉘라셔 뎐ᄒᆞᆫ 말고 약을 ᄏᆡ다 어듸셔 물거븜에 되단 말가

(라 말이라)

(프른바다히 ᄲᅩᆼ나무밧치되고 도로바다히되ᄂᆞᆫ거ᄉᆞᆯ 세번보다 말이라)

상뎐벽히 세번 봄은 묵혀 셩각ᄒᆞ니 됴면ᄒᆞᆫ 이ᄒᆞᆫ 몸에

(마고ᄂᆞᆫ 신션 계집이라)

마고한미 혯말이ᄅᆞ다 이제야 ᄭᆡ도게라 창ᄒᆡ의 좁ᄡᆞᆯ일셰

축칠일희편 길에 우는 복쳐히 ᄉᆞᆼ화ᄂᆞᆫ 바ᄅᆞᆷ의 굴는 물결

보든 거ᄉᆡ 셜운 외라 발ᄭᅩᆺ히 쳐 여ᄋᆞᆺ고 눈 ᄀᆞᆺ더 흣터지니

(구로ᄂᆞᆫ 갈ᄆᆡᆨ이와 ᄒᆡ오라비니 표랑은 날마 헤여지고)

구로ᄂᆞᆫ 표랑ᄒᆞ고 소곰주고 고기잡ᄂᆞᆫ ᄇᆡ ᄃᆞᆫ 얼ᄌᆞᆯ 저시 간고

(녀마ᄂᆞᆫ 말라 나귀니 뼈녁은 놀나 피ᄒᆞᆫ다 말이라)

녀마ᄂᆞᆫ 뼈녁ᄒᆞ니 포민ᄃᆞᆯ의 모양본 ᄉᆡᆺ갓지븐 갈광이라

(포민은 거ᄉᆡᆨ 박셩이라)

셩녀로가련ᄒᆞ야 장진의 요괴ᄒᆞ고 미련ᄒᆞᆫ 중복ᄃᆞᆯ이
뇌음보뫼굴首라어 쳔블동ᄎᆞ자려니 모로그라 웃더고야
먹갓ᄐᆞᆫ 거믈주름 관 거ᄉᆞᆯ 밧비 모라 세존쳔지궁뎐라 (물일ᄒᆞᆫ 흉예오)
비붓을 쳐 축ᄒᆞ니 신제로가 주쇠라 (뫼일ᄒᆞᆫ 흉이라) 미륵봉 보현봉을
ᄎᆞ례로 거너치고 (션당은 둥의 집이라) 우둥의 잠간 뫼가 봉션뎐 누리보뎐
션당의 드러가니 각ᄎᆞᄒᆞᆫ 경일너라 주름의 소사 잇고
튀각좌반고 소리쳐ᄂᆞ 봉쫑을 보려ᄒᆞ고 머리뷘 ᄂᆞᆷ 여ᄌᆞᆫ이
소찬어 졍결터라 일즉이 문에 나니 ᄂᆞᆯ나기 원숭이라

독목교바희길을 봉만은층텹ᄒᆞ고 블근꼿프른ᄂᆞ믈

(독목교ᄂᆞᆫ외나무다리라) (봉만은뫼ᄲᅮ리나층텹은층ᄒᆞ고텹ᄒᆞ다말이라)

나ᄃᆞᆯ셔너나더라 롱ᄇᆡᆨ은울밀ᄒᆞᆫ듸 빙셜둥의비쳔졍이

(롱ᄇᆡᆨ은관롱나무와잣남기니울밀은ᄲᆡᆨᄲᆡᆨᄒᆞ다말이라)

인간은어ᄃᆡ된고 벽쇼현ᄌᆞ버보고 앙지더말ᄭᅴ엇ᄒᆞ

별쳬지여지로다 좌평암칠연둥의 금강문나ᄃᆞ르며

일곡형제건너셔 발희ᄇᆡᄉᆞᆫ간줄어 옥뉵벽제명ᄒᆞ의

(제명은일홈뭇다말이라)

옥로줄어엇더현ᄋᆡ 방졍ᄒᆞ우ᄎᆞ방갓더라 운즘목ᄂᆞ리감ᄒᆞ

셕졍의막미짐허 엿히주졍ᄒᆞ엿에 곱ᄒᆞᆫ물흘너지며

(셕졍은돌길이라)

비봉폭모봉폭을 뉵삼빅길필별ᄒᆞ 하ᄂᆞᆯ그ᄂᆞ되ᄂᆞᆫ듯

비ᄒᆞᆫ옥갈로와 ᄀᆞᆯ가온ᄃᆡ ᄌᆞ쟛져니 ᄒᆞᆫ물을 열번 건네
광ᄒᆞᆫ우례소ᄅᆡ 이목에 현난ᄒᆞ다 주봉을 ᄎᆞ자ᄅᆡ고
허위ᄃᆞ 올나 ᄭᅳᆺ니 웅ᄒᆞᆫ 벽돌소ᄅᆡ 갓가이 드러 가니
거운도 갓불시고 먼니셔 ᄃᆞᆯ니어니 벽녁이 얼어ᄂᆞ니
삽텬ᄒᆞᆫ 쳑벽후에 퇴산에ᄒᆞᆫ ᄃᆞᆯᄂᆞ고 빅얼에 헝셩ᄒᆞᆫᄃᆡ
삽쳔은 하ᄂᆞᆯ의 닷ᄒᆞᆫ 말이오
빅홍은 흰므지개라
빅홍에 걸녀셔니 만마가 ᄃᆞᆯ니ᄂᆞᆫ ᄃᆞᆺ 쥰ᄒᆞᆫ 풍우오ᄂᆞᆫ ᄯᆞᆯ가
녀와씨 돌을 녹여 오히려 틈에 업쇠 대우희 프른 학이
하ᄂᆞᆯ을 기웟더니 은하슈가 셔 간ᄯᆡ가 ᄂᆞᆯ나 ᄂᆞ라 못ᄀᆞ리니

디산폭포삼쳔쳑이 나젹션의시ᄀᆡᆨ면 평싱어에득ᄒᆞᄂᆞ니
(니젹션은당나리시졀ᄒᆞᄃᆞᆫ니ᄐᆡ빅이라)
장ᄒᆞᆫ형셰뎌뎌장ᄒᆞ니 뉘라셔형용ᄒᆞ올고 말소리몰나ᄒᆞᄂᆞᆫ네
물속의ᄉᆡᆷ은용어 사ᄂᆞᆫ디어브렁거다 경각의비언리로
경괴ᄒᆞ시축상업쇠 연본이젹으니ᄂᆞᆫ 막어셔봇본다데
(우암은송시니아동명현이라)
우암션싱팔ᄌᆞ셔는 근원을ᄌᆞᄎᆞᆺ고 충ᄇᆡᆨ에사ᄀᆞ나리
필역도웅건ᄒᆞ다 졀졍에올나가 허다ᄒᆞᆫ고위ᄌᆡ승에
셔남간의팔감을 긴골에거른반셕 졀은폭포긴폭은 ᄂᆞᆫ
먼니셔보라보니 여동현충확이되여 옥용이ᄯᅡ호ᄂᆞᆫᄃᆞᆺ

병에 물거우른듯 솟회와 주홍되니 블근안개 프른의긔
굽흔 형셰 긔ᄶᅡᆨ으리 낭ᄒᆞ지 안을손가 세샹에 져 졀승ᄒᆞᆫ듸
아득ᄒᆞᆫ 큰바다히 오던길 졍쥬ᄂᆞ려 낙가울마다 암ᄌᆞ에
ᄒᆞᆫ잔물에 되야뵈니 옥ᄂᆞᆨ동 젹ᄆᆞ시ᄡᅳᆫ흐로 언도소리 둘은후에
인도ᄂᆞᆫ 듕의 경외오ᄂᆞᆫ 소리라
향그젼 도라오니 만물초 보라가쳬 녹황쳥 열고보니
뫼ᄭᅩᆺ 날이 져물거다 죽숙경 도리가라 온편이 소사ᄂᆞ네
샹ᄒᆞᆫ당 쳥히ᄲᅡ고 날마다 물마르계리 녹화암 도라드려
셕샹은 돌노 ᄆᆡᆫ든 평샹이라
셕샹을 눈화고아 각셕병 신라모티 ᄉᆞ져 목울나셔니

슉빅길 션반희지 시ᄉᆡ길 슉어도려 돌셥희 나무등걸
하ᄂᆞᆯ을 ᄇᆞ랏더라 양광주곡을 나가서 슉죽이 병힝ᄒᆞ셔

양광주곡은 양의 챵자가 아홉구뷔니 길이 그ᄀᆞ치 험ᄒᆞ다 ᄆᆞᆯ이라

슉죽병힝은 슉과 ᄃᆡ로 ᄀᆞ치 ᄒᆞᄂᆞᆫ 모양이라

쉬어모ᄅᆞ리 어울나 간반ᄂᆞᆷ죽 허ᄒᆞ다리 올흔편은 졀벽이오
마주막나ᄃᆞᄅᆞ니 ᄒᆞᆫ편길 너머 졍욱되ᄂᆡ 왼편은 만인령참

만인령참은 만길이나 되ᄂᆞᆫ 구렁이라

만일ᄒᆞᆫ번 실족ᄒᆞ면 벽을안고 졍욱ᄒᆞᄂᆞ 돌부ᄅᆞᆯ 긔어나ᄉᆞ
쇄골표풍 경각이라 사다리 올나셔며 동을 도라보니
놉고거괴ᄒᆞ야 온쳥졍ᄒᆞᆫ 줄기가 구ᄅᆞᆷ속의 연ᄒᆞ여가
만물초가 분명ᄒᆞ다 북을 돌너ᄃᆞᆫ듸 닷도아 뵈아ᄂᆞᆺ서

긔슌영웅괴슌모양 국갈버슨흙은둉과 날즘셩에날고셔며

갓튼것도만ᄒᆞᆯ시고 괄쟝질은어린ᄋᆞ희 걸즘셩의거고안즌

척허동각ᄃᆞ려생 텬지개벽쳐음홀지 온갓물형초롤접아

됴화는도화홍이라

의희ᄒᆞ고향불ᄒᆞ나 도화가무ᄉᆞᆫ일고 쳬생살ᄋᆞᆷ븨난말가

낭쥐슌찻거닉어 온졍에손을씻고 쳔역졍쇄우는곳에

거갈울진명ᄒᆞ고 슉소로도라오나 셤불이슌가ᄒᆞ나

가그라ᄭᅢ져봉아 발연동두러가니 좌화며졀은비ᄂᆞᆫ

앵진역어쇠미오 빈터만남앗도다 억기가반은벅고

홍예ᄂᆞᆫ 무지개라

홍예ᄐᆞᆫ 돌다리ᄂᆞᆫ 저ᄉᆞᆨ대 ᄭᅩᆺ치 ᄒᆞ엿고 쳥산은 말이 업고

엄불에 부텻시나 봉ᄂᆡ셥고 갈만 ᄒᆞᆫ내 류슈ᄂᆞᆫ 오열ᄒᆞᆫ듸

항하ᄉᆞᄂᆞᆫ 붓쳐의 겁운이라

향하ᄉᆞ 지날 겁을 물근못 ᄉᆞᆨ뼉ᄒᆞ에 진표률ᄉᆞ 쳥심법에

진표률ᄉᆞᄂᆞᆫ 즁이라

발우ᄂᆞᆫ 즁의 바리지라

츈광이 의구ᄒᆞ와 발우형용 ᄀᆞᆺ톨셔고 치폭그림 거ᄒᆞ로다

옷벗고 물에 ᄲᅡᆯ졔 잠기여 가시ᄆᆞᆷ을 씻고ᄅᆞᆷ ᄒᆞ더니 업고

폭포ᄯᆞ라 봇치 더져 치폭이 다 일우니 발연만 남엇더라

쵸장이 말을 돌녀 민셩은 별로 살고 회산졍 일ᄅᆞᆯ 보라

희쥭은 바라 소산이라

고셩읍 드러가니 관황은 희쥭일네 동쥬 엄안뎍시니

칠셩셕버셔 벗고 부상의 모셕구롬 됴모ᄒᆞᆫ 불근빗치

부상은 동방 ᄒᆡ돗ᄂᆞᆫ 디라
치홍은 쳐셕 무지개라

뎌호졍 웃둑ᄒᆞᆫ뒤 쳔홍퇴로 빗기뎌며 흰바다 ᄒᆡ되ᄂᆞᆸ 여ᄂᆡ

텬ᄃᆡ만 ᄉᆡᆼ변화ᄒᆞ뎌 버욱고 믈 빗ᄉᆞᆷ로 토ᄒᆞᆯ ᄃᆞᆺ 못ᄒᆞᆯ ᄃᆞᆺ 됴

ᄎᆞᆼᄉᆡᆼ키 ᄆᆞᆺᄒᆞᆯ거니 블 ᄀᆞᆺ튼 둥근 박희 ᄂᆞᆯ ᄯᅳᆫ 물결 당양ᄒᆞᆷ 며

하ᄂᆞᆯ의 ᄯᅴ여 올나 지텩의 ᄯᅳ라 갈ᄯᅩᆺ 희즘 강빈ᄅᆞᆯ 차고

광쳐가 근에 혓니 평셩의 당관일셔 그림ᄌᆞ 주버보니

셕봉이나 졀ᄒᆞ니 벽 미ᄌᆞᆺ혀 나ᄂᆞᆫ 소ᄅᆡ ᄉᆞ공은 져 부러 불ᄂᆞ

개골산 톄쇠로다 은이 게 즈ᄂᆞᆫ ᄃᆞᆺ 희ᄌᆞᆨ에 소ᄅᆡ라뎨

메욱타ᄂᆞᆫ져 ᄉᆞᆲ아 ᄉᆞ모ᄌᆞ각 엳ᄅᆞᆫ 거ᄅᆞᆯ을 긴광대 ᄭᅳᆺᄎᆞᆯ 찾야
가련ᄒᆞ고 의태ᄒᆞ다 연ᄒᆞ야 물에 다고 잠간ᄉᆞ이 감아니러
풍파가 이ᄂᆞᆫ 속에 셩의 도둥거니와 환희예 취ᄒᆞᆫ 손님
환희ᄂᆞᆫ 벼술ᄒᆞᆫᄂᆞᆫ 세상이라
평지와 갓치 보니 셩명 언들에 ᄎᆞᆯ소‡ 이ᄅᆞᆯ 보아 경계ᄒᆞ소
봉천암 생쳐둥이 ᄉᆞ셜졍울十 강니 숙졍 갓ᄐᆞᆫ 호숙 빗치
복난주로 셜로마쟈 삼일풍과 연뇨희 둥굴기리여ᄂᆞᆫ뎌
삼십뉵묘ᄒᆞᆫ 봉에 영낭ᄒᆞᆯ낭 모ᄃᆞᆫ 신션 단셔줄 여ᄉᆞᆺ ᄉᆞ가
됴묘히 둘어 잇서 어ᄂᆞ 희예 그단 ᄯᅳᆯ고 왼연ᄒᆞᆫ ᄉᆞ뢰로쇄

호산은의주ᄒᆞ고 쳐운은훗터지고 낭원현포주술잔헤

낭원현포는신션잇는곳이라

발근ᄃᆞᆯ두렷ᄒᆞ다 셩학이묘연ᄒᆞ다 어긔젹숭찬노라니

셩학은져와학이라

안긔셩젹숭것논신션의ᄌᆞ최ᄒᆞ혼ᄋᆡ라

우연이ᄒᆞᆫ번ᄀᆞ나 ᄎᆡᆼᄒᆞᆫ뎌빅구야 챵연이ᄂᆞᆯ은다셔

다셔모기쉬울손야 머ᄂᆞᆫ그쳐 보엿노라 빅발을줍져기고

녹션관의잠을드니 옛살ᄋᆞᆷ어린셩각 션리락은못맛ᄂᆞ나

ᄒᆞᆫ춤이허셔로ᄃᆞ다 ᄇᆡᆨ향비ᄂᆞᆫ무ᄉᆞᆷ일고 풍악이나주졍ᄒᆞᆫ다

ᄇᆡᆨ향비ᄂᆞᆫ히변의향목을무더쳔년후닛ᄂᆞᆫ혼혀ᄒᆞ고비를셰여긔록ᄒᆞᆫ데시라

졍고로거ᄂᆞ가니 ᄇᆡᆨ쳔고건너셔며 환희졍ᄂᆞ려안ᄌᆞ

물방아가녈ᄃᆞᆯ일네 건풍각의다셔지ᄂᆞ 구룬졍의물을ᄂᆡ고

동희셕가셔 보고 문슈보살 명ᄒᆞ옴쇠 욱져못ᄂᆞ 두뒤도라
너미예 올나셔니 지금에 뎐ᄒᆞ어다 산영ᄂᆞ 안ᄌᆞ 보니
누각도 당녀ᄒᆞ고 간향목셕인거시 그우희 가지마라
간확도희 황ᄒᆞ샤 뎐듁산모ᄅᆞᆯ 쳐셔 오시섭삼불 안졋셔니
어ᄃᆡ셔 왓나 말고 셕불ᄋᆞᆯ 갓다고 ᄂᆞᆯ옴남게 북울 걸고
월지국 북쳐다에 ᄇᆞ사ᄅᆞᆯ 뎐ᄒᆞ어 와셔 못우희 버러시니
이행은 불ᄉᆞᆺ ᄒᆞ고 고셩군 숙노ᄅᆞᆯ 어가 버졀울 창리ᄒᆞ고
ᄭᅩᆺ비ᄂᆞᆫ 북ᄅᆞᆯ ᄒᆞᆫ뎌 고려왕거 ᄃᆞᆯ외고셔 금불울 봉안ᄒᆞ니

못속의 어ᄅᆞᆸ 풍어 무연조 오락명을 죽지ᄒᆞ여 수용ᄒᆞ니

무연조ᄂᆞᆫ 붕을 쳐여도 굴두의 연괴가 업지 무연조라 ᄒᆞ고 오락정은 가마

신계로 갓나ᄒᆞ메 일ᄒᆞ히 물은후에 보비도 만흘시고

괴가쇄을 짓조아 우물을 어덧기 오락정이라 ᄒᆞ더라

호박잔 왕목 벼ᄅᆞᆯ 쳐조대왕 ᄒᆞᆼᄒᆞ시ᄆᆡ 인목대비 어필ᄒᆞᆫ 쳡

육리대에 맛쳣시니 어ᄂᆞ ᄒᆞ선 거서라에 모란본의 어즙 ᄌᆞᆯ은

정명공주 국을 비러 심획이 진밀ᄒᆞ니 귀엽경 두입 수쳐

뮈엽경은 셔역 텬튝국의 잇ᄂᆞᆫ 나무 닙히 ᄲᅡᆫ 불경이라

친히 ᄲᅢ ᄂᆞ리시니 졀세ᄒᆞᆫ 보빌너라 셔역의 셔어더 오니

지공대ᄉᆞᄂᆞᆫ 옛신승이니 뮈엽경을 어더 온 중이라

지공의 신동ᄒᆞᆷ어 평셥담ᄉᆞ 술발을 의셜남 너허지니

그도 ᄎᆞᆷᄒᆞᆫ 신긔ᄒᆞ메 ᄂᆞᆺ치ᄉᆞ 정ᄒᆞ고 은쳔대 올나가니

곱기가ᄌᆞ음 어ᄃᆡ 희변의 맛고을이 쳥문동 열두폭은

안계도 광활ᄒᆞ다 아홉졈 프른 셜ᄒᆞ다 불숙쪽 솟치 안다

일츌봉 월츌봉에 풍셔의 기ᄇᆞᆫ 도장 쳔연봉 도라보니

좌우로 엿보ᄂᆞᆫ 듯 불졍ᄃᆡ에 연ᄒᆞ여라 만경ᄃᆡ 도흘시고

둥셔원 빅곤엉을 안문병 올나셔니 소명ᄒᆞᆫ 큰 ᄎᆡ지예

춍이 못다 보고 어엇던 별쳔 넌고 구츌봉을 뭇거셔

묘고ᄂᆞᆫ 신션의 뫼일홈이라

묘고의 어ᄃᆞᆷ 언자 연화ᄃᆡ 빅옥졍의 일월은 ᄒᆞᆼ상ᄒᆞ고

쳔불은 신션과 붓쳐라

곤츈의 옥 어쳔가 쳔불을 만나보ᄂᆞᆫ 듯 운연도 평평ᄒᆞ다

미친흥 못것잡아 빅화남 물근봇ᄎᆞᆯ 너허여 ᄲᆞᆯ울 ᄯᆞᆺ고
황망에ᄒᆞ여 ᄀᆞᆺ나 얼홈울 녀지은고 묘길생 물은후에
나허ᄐᆞᆫ니가와 허가 ᄀᆞ든티 온
묘길생은 ᄎᆡᆨ벽의 ᄉᆡᆨ인 ᄃᆞᆺ처와 ᄒᆞᆫ생이라

불지암 감노숙와 혈ᄲᅡᆼ봉 감부울 물에 기브그거 ᄆᆞᆫ거슨
마ᄒᆞ연 제숙 남우 진도승어 갈치게 화훙감이 어ᄂᆡ련가
중ᄒᆞᆼ운 거북등은 진축감 방울물은 분설감 설음은 형체
지감언 ᄎᆞᆯ알니로다 옥반의 ᄎᆡᆨ노ᄂᆞᆫ 듯 흰ᄭᅩᆺ치 ᄒᆞ터진다
절승ᄒᆞᆫ 벽하감과 빅풍남 옥룡감에 만폭동 ᄒᆞ여오니
ᄉᆞ랑호온 비파감과 사팔감 어ᄂᆡ련가 이거시 ᄌᆞ롬 일셔

흰줄물 모하나사 족에로운뇌졍 섯ᄂᆞᆫ뫼어며질듯
ᄒᆞᆫ줄억에 뽀나재 만고에 둘게더라 가ᄂᆞᆫ주름 뎌쳣더라
원화동텬 봉니공박 풍ᄉᆞ샤비등ᄒᆞ니 고옴의석인얼홈
양ᄉᆞ언에 줄실로다 필쎄ᄉᆞ 종횡ᄒᆞ라 빈틈어 업더쳐야
현하명사 석인것히 굽은줄 창벽상에 주의기둥 알벗치고
나도ᄯᅩᄒᆞᆫ 쓰고뫼라 터즌암ᄌᆞ 날여서니 털삭을로 뒤엎것시
경쇠털로 날겨서니 향그봉ᄌᆞ버보고 허ᄒᆞᆼ줄 하길ᄒᆞ야
명막의지압에런가 텽학여와가ᄌᆞᆫ니 울으뢰ᄒᆞᆫ역언라

부텨의 영험으로 관음보살 미어되야 관음남희우 선에
보덕ᄉᆞ자지엇ᄯᅡ에 예와셔 ᄒᆞᆫ번 놀미 세ᄃᆞ볼숙건인줄을
지금에 ᄂᆞᆨ쳔ᄉᆞᆼ니 평호연에 놀을 ᄂᆡ고 내원통ᄃᆞ려 가니
ᄂᆞᆼ의 ᄯᅡᆯ이 허갈ᄒᆞᆫ메 공국남의 물을 ᄎᆞ라 뭉쳥이 ᄂᆡᆯ록ᄒᆞ와
ᄂᆞᆼ향셩ᄃᆡ에 지고 만회암 남편을 우화여 강션ᄃᆡ가
ᄇᆡᆨ운ᄃᆡ 엽희엇네 쳥영ᄃᆡ지나가셔 국에 불되로다
숙미동ᄃᆞ려 가니 놀국을 포가인ᄃᆞᆺ 삼시ᄇ여길둥준데가
숙미담에 신거ᄒᆞ다 ᄆᆡᆺ돌을 ᄡᅡ앗ᄂᆞᆫᄃᆞᆺ 됴묘히 쇼사시니

과아의옥녹긔로 셜편의주룸쳘리 그젓히져즌봉에
궁교히 삭가ㄴ듯 원리가넘너ᄒᆞ와 칠ㄱ속향쳘히꼿히
희얀ㄷ거문돌에 침향근셕벌룸지 에 쇼유동궁진택에
빅은나복동벌일세 셕당궁이삭어쳣에 여낭졈소사잇스
셕당궁은셰종조승지공별호라
운옥명쥬대와 남쪽명승지라 청녀당ㄷ굴은지답어
쳔암동허상동에 동북가십ㄱ축ᄒᆞ와 정양ᄉᆞ올나가셔
쳔역벗비칠닥에 동향셩벌벽쳡 에 그악뢰만이쳔봉
헐셩누완경ᄒᆞ니 비로봉에조산이라 오손텨로별어서너

명긔가도란 ᄒᆞ야 츅슉의부용이며 은약을여ᄉᆞᆺ에 (은약은은자물쇠오)

독ᄒᆞ에부ᄉᆡ엿다 요지예주울나무 (요지ᄂᆞᆫ신션잇ᄂᆞᆫ곳이라) 금졀을통개ᄒᆞ니 (금졀은곰되졀이니옥뎨제신뎐이라)

근학물어서ᄒᆞ야 셔긔가울총ᄒᆞᆫ ᄃᆡ 여원써흰 ᄂᆞᆫ빗치

준션어됴회ᄒᆞ고 체불이현셰ᄒᆞ시 (현셰ᄂᆞᆫ셰샹의뵈다ᄯᅳᆺ이라) 업슉ᄒᆞᆫ물ᄂᆞᆫ경운

고ᄉᆞᄋᆡ긔상ᄭᅩᆺ고 진체예ᄒᆞᆫ남ᄒᆞ물 방랑대남무갈은 (남무갈은부텨의별호라)

청인의위의로다 황연에ᄭᆡ돗게다 내허조졀ᄒᆞ셔니

비졉은날어오나 진일ᄯᅥᄂᆞ옹부도 츅각뎐ᄃᆞ라보고 (빅호랑은부텨의셔과ᄒᆞᄂᆞᆫ치라)

빅호랑이뎍막ᄒᆞᆫ 플속에무텻더라 뎐울ᄯᅥ완보ᄒᆞ니

옥갓흔 봉만들이 흉벽에 치닷ᄒᆞ야 슉좌방상을 징고

날울마쟈 읍ᄒᆞᆫ ᄃᆞᆺ 경익울(경잉온 신션의 술이라) 쵹숩갓히 쿄운울 ᄂᆞ려가니

옥명ᄒᆞᆫ의 ᄉᆡᆼ대ᄉᆞ 웃듬 상ᄌᆞ 쿄ᄒᆞᆫ 어ᄉᆞ 텬일뎌 츅봉 삼고

오대산 셔이되 올ᄎᆡ 어쳘울 지엇ᄯᅪ게 능파누 알뢰엇다

함영교 너머가셔 휵졍ᄉᆞ(휴졍ᄉᆞ는 산승셔 상디ᄉᆞ별ᄒᆞ던 ᄃᆡ라) 비셔시니 삼불암 쉬보ᄃᆡᆫ(혜근은 녯즁의 일홈이라)

빅화암 ᄎᆞᆺ시 친ᄂᆡ에 월ᄉᆞ(월ᄉᆞ는 ᄂᆡ시나굴 잘ᄒᆞᄃᆡ 명ᄒᆞᆫ 듯ᄃᆞ라) ᄯᅩᆨ가 지엇ᄃᆡ라 혜근에 셕언 비라

이기가 덥허셔니 명은 남 깁흔 ᄯᅮᆼ촉 고려셕 김동거ᄉᆞ

부텨도 무렁ᄒᆞ다 머나 갈뎌의 ᄃᆡ텨ᄒᆞ다 나옹과 졀우다가

법역어미 ᄋᆢᆨᄒᆞ야 석벽을 안고도라 녕안ᄉᆞ듕의 ᄂᆞ려

예쳔뎌쥭 어ᄉᆞ라데 나무다리 건너가셔 발셔와 기도란다

벽텬봉 길을 ᄎᆞᄌᆞ 숙시ᄇᆞ 길 걸른돌이 ᄎᆞ면ᄒᆞᆫ 남가ᄒᆞᄂᆞ

가셥봉 젓희가셔 젼후면 평에 ᄒᆞᆺ가 일홈이 옥경되다

금ᄉᆞ굴 초곰지ᄂᆞ 신남왕ᄉᆞ 피란터에 괴로이 와신생남

　와신생담ᄆᆞᆫ 셥흘 ᄭᆞᆯ고 누어 불 키르고 맛보

숙왕셩 ᄭᅢᆺ터이로다 석둑에 어ᄌᆞ웝가 샤직을 못보ᄂᆞᄂᆞ

　아원숙잡기의 마음을 게울니야 ᄒᆞ단 말이니

도ᄅᆞᆯ셔암 슐믄 소리 망고덕 쳔근월에 오리봉 놉흔 언덕

　초혼조ᄂᆞᆫ 초희왕의 혼이 된 셔라

바회 ᄭᅩᆺ 블근헐어 초혼조 슬피우셔 반야고개 허믈ᄒᆞᆫ다

동나ᄂᆞᆫ 당다 초리이라

동나에 셔던 길에 삼을 북옥ᄒᆞ고 옹나도 웃둑순 것

옹[illegible]은 소나무 숩[illegible]이라

갈ᄉᆞ록 올나 갓셔 빅랍을 ᄎᆞ잣ᄂᆞ니 문랍이 휘ᄀᆞᆯ 일ᄂᆞ

가진 랍도 좁거니와 가보랍 다 본 후에 발갓치 ᄃᆞ되온 물

층뎡랍이 어옥ᄒᆞ되 속졀을 도라보니 일광이 당양ᄒᆞ니

언덕의 쳑촉화ᄂᆞᆫ 시셔가 몰ᄂᆞᆫ 얼ᄃᆞᆫ 타ᄂᆞᆫ 목젹 신후의

ᄌᆞ뎐ᄂᆞ 축ᄉᆞ 저어 ᄒᆞ노라 속물의 쉬텨ᄂᆡ여 뎡원을 건너 가니

검각은 촉나라 험ᄒᆞᆫ 뫼라

낭양ᄂᆞᆫ 절이라

축나라 검각이 놀 난양의 한즁 보니 시ᄇᆞᆫ 왕봉 돌거ᄂᆞᆫᄃᆡ

어예셔 어여 불ᄉᆞ 지쳬가 그 광좁다 뎐연ᄒᆞᆫ 별쳬 계라

셩원ᄉᆞ졔불ᄒᆞ션 뎐록을 가연ᄒᆞᆫ후에 ᄉᆞ나문셔ᄂᆞ라셔
비셕대욕쵸어에 낙화ᄒᆞᆫ옷ᄉᆞᆯ버ᄉᆞ니 지랑업신 연ᄒᆞᆫ후에
낭안ᄉᆞ두어 갓ᄂᆞ니 시ᄂᆞ덕 밋셜그셔 부텨의 갓졉이며
불뎐에 화치ᄒᆞ니 원츈에 원낭쌍아 긔이ᄒᆞᆫ 박쌍행고
듕국인에 편든비다 신션ᄂᆞ에 ᄎᆞᆺ잠ᄎᆡ야 이ᄂᆞᆯ이 셩션이라
ᄉᆞ월이십칠일이 셩션이라
제도가궁고 ᄒᆞ니 ᄌᆞ지국 노리ᄒᆞ니 ᄂᆞᆨ시ᄇᆞ연쳐 음이롤라
청병ᄒᆞᆫ연하긔ᄅᆞᆯ 셩각이 ᄂᆞᆺᄒᆞ야 ᄉᆞᆨ연이 미진ᄒᆞ고
우화는 신션되단 말이라
벼불니 ᄊᆞ셔셔ᄂᆞ니 우화ᄅᆞᆯ ᄒᆞ여ᄯᅥᄂᆞ니 연분에 ᄯᅵᆯ온ᄂᆞ다

격셤이총총ᄒᆞ야 옥셤ᄯᅡᆷ가ᄅᆞᆫ쳡고 간발경검는길에
만텬고가ᄯᅳᆫ길에 피목령왼나ᄭᅩᆺ가 머리를두루혀니
쳡쳡ᄒᆞᆫ봉ᄂᆡ산에 먼ᄂᆡ와보내ᄂᆞᆫ듯 밋ᄎᆞᆺ히비희ᄒᆞ니
졍인은졍든사ᄅᆞᆷ이라
셕양에비최ᄂᆞᆫᄃᆡ 보라ᄆᆡ암연ᄒᆞ와 졍인을니별ᄒᆞᆫ듯
녀ᄃᆞᄒᆞᆫ이모몸에 계울니블을못타 봄혼에의의ᄒᆞ야
어ᄃᆞ쉬ᄂᆞ셔보뢰 통거에잡을두니 희약을ᄂᆞ셔간게
가던길도로발바 화덕연빗을지고 동그에동형니별
풍뎐덕나도라셔 삼부연잠간ᄃᆞ녀 언간에최탄터라

난발영나ᄆᆞᆫ 황ᄉᆞ 초창에 길을 난화 한가ᄒᆞᆫ 협듕총에
방ᄌᆞ에 ᄎᆞ도 녹거나 쳘둥(쳔둥은 ᄎᆞᆯ오날이라)ᄂᆡ퇴지ᄇᆞᆼ의ᄒᆞ여 조뎍ᄒᆞ여 ᄆᆡᄒᆞᆫ도라
ᄎᆞᆨ하의 녀손들에 그령시 변역ᄒᆞ오리
ᄎᆞᆷ강산 말ᄒᆞ라니 실업고ᄂᆞᆫ 실업니

세셔 갑언둥축의 ᄎᆞᆯ동에 ᄉᆞ와셔 낙길
갑신연의 ᄌᆞᆷ강산 보신 일거신묘 견의
벗겨 어니 봇보기 되여 기다시 벗기나
눅ᄎᆞᆫ의 안혼 시ᄉᆞᆫᄒᆞ야 간신 벗기니 손〻
손〻 이져혀 불지어나